지역 소식통

고창군, 주요정책 부패 위험성 사전진단 실시

고창군이 주요정책의 부패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정책(사업)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를 실시한다.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는 고창군의 주요정책 수립시, 특혜나 부정수급 등 부패위험요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됐다.

업무 담당자들은 부군수 이상의 결재시 신규 정책에 대해 부패위험성 사전점검표를 적용한다. 이를통해 정책(사업)의 △특혜발생 가능성 △부정수급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재정누수가능성 △적극행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전북특자도 유일)'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청렴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본격 추진

부안군은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 지원을 위해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되며 도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로컬푸드직매장 및 농협하나로마트, GS25, CU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7개 품목(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2%이하)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이며 단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농식품바우처 누리집), ARS 전화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만원, 2인 가구 6만 5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어르신 돌봄 패키지' 출발

방문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지원… 5개 기관과 협약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읍시가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나섰다. 방문의료, 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이를 위해 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재선정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경계선에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 2억 3100만원(도비 7000만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적용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정읍시는 전국 35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지원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인 돌봄의 선도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탑가정의학과의원(방문의료서비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읍지부(재활·운동 지원) △정읍주거복지센터(주거환경 개선) △정읍시니어클럽(건강 맞춤식 제공) △다솜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서비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탑가정의학과의원은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를 지원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읍지부는 방문운동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한다.

정읍주거복지센터는 가구당 100만원 한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문턱 제거, 낙상 예방, 화재 안전 조치 등을 실시한다. 정읍시니어클럽은 건강 맞춤형 영양식사를 제공해 도시락·밑반찬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돕는다. 다솜재가복지센터는 틈새 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청소, 식사, 신체지원 등 맞춤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기존 32개 개별서비스를 포함해 총 4개 분야 37개 서비스로 확대해 어르신 200명에게 통합적인 돌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영농부산물 잘게 부숴 밭에 뿌리세요"

고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본격 시행

고창군이 지난 18일 고수면을 시작으로 관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밭두렁에서 고춧대·깻대·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신청한 농가에 나가 파쇄기를 사용해 무료로 분쇄해 주는 사업이다. 자연순환 문화를 정착하고 봄철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미세먼지 발생도 낮춘다.

고창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상반기에는 신청을 접수한 43농가(총 27ha)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쇄작업을 진행한다. 추가로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상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고창군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파쇄기 총 23대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 단위로 공동 파쇄작업을 진행할 경우 무료로 파쇄기 임대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퇴비 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실천, 농경지 내 방치된 영농부산물 처리를 통한 깨끗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촌 정착, 걱정 마세요"…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주택 수리비·영농 정착·주택 신축 설계비 등 초기 정착 초점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정읍시가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농촌 정착의 부담을 줄인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리비, 영농 정착 지원, 주택 신축 설계비 등을 포함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정읍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이다. 또한 40시간 이상의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중 50%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창호·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지붕 수리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다.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2000만원(50% 보조), 2030 세대는 1500만원(100% 보조)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 필수 농업 장비 지원이 포함돼 있어 초기 영농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주택 신축 설계비도 지원한다. 세대당 800만 원을 기준으로 50%를 보조하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민 정책제안 3월 18일까지 공모

정읍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시민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의견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 기간은 3월 18일까지이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인당 최대 2건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시상은 1인 1건으로 제한된다. 채택된 제안은 정읍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실제 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 개선이 필요한 정책 △생활인구 유입·다자녀 가구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정읍형 관광·먹거리·축제 활성화 △기타 정읍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등 정읍 발전과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응모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제출, 팩스(063-539-6804) 또는 이메일(jysco21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심사 결과는 5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정읍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계화면, 2025년 협심도진 군민과 '희망소통대화' 성료

부안군 계화면(면장 김화순)은 19일 계화종합복지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및 부안군의원, 김정기·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협심도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계화번영회(회장 김종호) 및 계화체육진흥회(회장 김정군)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과 이계화 원창마을 이장 및 계화버르게살기협의회(회장 황정덕)의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로 시작됐다.

이후 개회 및 내빈소개에 이어 면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군정 비전 공유 동영상 시청,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화순 면장은 면정 보고에서 "사계절 꽃 피우는 아름다운 계화를 조성하고 맛집·카페·체험거리를 연계한 계화 일일 패키지 투어를 운영해 생활인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과 함께 더 큰 내일을 향해'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년 군정 비전 및 운영 방향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 군정에 대한 계화면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모든 연령층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읍시가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연령층을 위해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읍시보건소는 올해부터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해, 기존에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만 제공되던 지원을,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15~19세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도 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에 대해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e보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